

노조 찬반투표…기아차 2년 연속 파업수순

임금협상 결렬…가결 가능성 높아

교섭초기 실제 파업까진 변수 많아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분위기가 무리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2010~2011년 모두 쟁의행위 없이 임금협상을 매듭지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사태에 돌입할 태세다.

13일 기아차 등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전날 오전 7시 부재자투표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 8시20분까지 광주공장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등 전체조합원 3만3000여명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어 이번에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12일 노조 회보 등을 통해 가결을 독려하고 나

섰다. 가결되면 20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결되더라도 실제 파업 돌입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좀 더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관계자는 “교섭 초기단계

이기 때문에 임금 및 별도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진 바 없어 입장차를 좁히려면 몇 차례 교섭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노조 관계자는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조정기간인 16일까지는 요구안 검토가 계속될 것”이라며 “파업 돌입 전에 사측에서 교섭을 요청해 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498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별도로 20여개 요구안을 일괄제시로 내놨다. 별도 요구안에는 사내하청 정규직화, 상여금 800%(~750%) 지급, 회사 순이익 30%의 성과급 요구, 조건없는 정년 연장 등이 담겨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6일 여름휴가 후에 가진 5차 본교섭에서 10분 만에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쟁의행위가 실시되면 통상적으로 임금 거부와 부분 파업을 거쳐 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투쟁의 강도가 높아진다.

기아차는 지난 2009년까지 19년 연속 파업을 기록했으며 특히 2009년에는 역대 최장, 최대, 최다 파업의 기록

을 세우며 해를 넘겨 2010년 1월에야

임금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지난해

광주공장은 파업으로 차량 2만2400

대 가량의 생산 차질을 겪었으며 매출은 3380억 가량 손실을 봤다.

기아차 관계자는 “상황을 두고 봐야겠지만 내수시장 부진과 해외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파업이 실시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中企 추석 자금 2000억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다가오는 추석에 자금에로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해 신규자금 2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대출’을 편성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3000억원의 만기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에 기일이 다가온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주가 원하

면 만기연장 해주기로 했다.

광주은행의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은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해 업체의 금융부담까지 덜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에서 사차향락

업종과 부동산 종업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광주은행 기업영업전략부 이정학 부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자금, 긴급결제자금을 지원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40억원 이내이며 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해 업체의 금융부담까지 덜어 주기로 했다.”

수제 최저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kg 당 3800원을 보장하고 약정물량을 조

회해도 전량 수매한다. 최종 수매가격은 수확 후 수제 시점의 메밀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aT은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씨종자 가 부족한 농가에는 현물 종자를 ha당 80kg을 보급하기로 했다. 현물종자를 보급받지 않은 농가에는 ha당 37만600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또 메밀 재배단지 규모화와 재배의 고품질을 위해 ha당 공동 운영비 14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경기자 bigkim@kwangju.co.kr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

이마트 농산매장에서는 13일 무더위 날리를 유명산지브랜드 수박을 판매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한 수박의 지난 2주간의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신세계 제공)

aT 광주전남지사 메밀 145t 계약재배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는 메밀 계약재배 추진에 나선다.

aT 광주전남지사는 13일 나주와 진도, 장흥, 순천, 고흥, 해남, 장성 등 7개 지역 135㏊(183㏊)와 계약재배,

145t를 수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제 최저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kg 당 3800원을 보장하고 약정물량을 조

회해도 전량 수매한다. 최종 수매가

격은 수확 후 수제 시점의 메밀 시중

체크카드 1억장 시대

1일 사용한도 300만원 폐지…사용 비중 3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1억장 시대를 열었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300만원 폐지 등을 통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하자 체크카드 활성화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 축소로 현금 사용이 늘면서 세수 악화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체크카드 촉진책으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신용등급에 맞춰 한도액을 늘려 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자 수를 늘려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면 체크카드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대체 체크카드로 갈아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렌트풀어 전세대출 지원 확대

보증한도 1억5000→2억

담보주택 요건 크게 완화

박용만 서울상의 회장

오늘 광주방문 간담회



박용만 서울상의 회장이 오는 21일 대한상의 회장 선출에 앞서 전국 상의 방문에 나선다.

박 회장은 13일 대구·대전 방문에 이어 14일 광주를 방문, 광주 및 전남·제주도 지역 회장단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한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상의와 상공업계의 협안 및 권리 증진방안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 71개 상의와 14만 회원사를 대변하는 자리인 만큼 청탁 행보로 지역상의 회장단과의 소통에 나섰다”며 “지역경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지방 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한상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만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에 따라 21일 열리는 대한상의 임시의원총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연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포함하고 1년 이상 성실 상환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과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의 ‘복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이달 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이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조5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는 9조400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도

보완해 서울보증보험의 소액임

차보증금 보험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

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보안

방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사들일 수 있는 채권의 담보주택 요건을

가격 6억원 이하 및 면적 85㎡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요건을

빼기로 했다. 거치 기간 종료가

임박한 대출 채권도 매입할 수 있

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동

일인당 보증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대비 보증한도도 연소득의

1.5~3배에서 2.5~4배로 확대하

기로 했다. 최저 인정소득도

기준 1.5~2.5배로 확대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코스피지수 1913.03 (+28.20)

코스닥지수 550.85 (+0.60)

금리 (국고채 3년) 2.92% (+0.02)

원·달러 환율 1115.30원 (+1.60)

무안 – 심양전세기 [7/26~9/30 매주 월,수,금]

심양 / 백두산[서파] 5일[월]

일급 1,090,000 특급 1,190,000

불포함 : 유류세(W86,000), 기사&기아드

심양/백두산[서파/북파] 6일[수/금]

일급 1,190,000 특급 1,290,000

불포함 : 유류세(W86,000), 기사&기아드

9/5 출발 확정!! ALL 포함!!

인천/연길 백두산 4일 1,050,000

불포함 : 개인적인 경비, 광주~인천 수송비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 기사&기아드(W10,000), 석식, 유류할증금(W22,000)

목포–제주도 2박3일 159,000~

불포함 : 기사&기아드(W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선택

항공 광주–제주도 269,000

불포함 : 기사&기아드(W10,000), 석식, 유류할증금(W22,000)